업무 법구

지은바 업은
인과 연이 모여서 성숙한다.
성숙하여 자신에게 닥쳐오는 업은
폭포처럼 막을 수도 없고
대신 받을 자도 없다.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잡사-

현대불교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8월 15일 수요일(주간) 제 330 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학인스님들 수화배우기

사람들의 삶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대인관계 즉 커뮤니케이션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분명하고 정확한 의사전달, 따뜻한 감정의 교류, 공동 목표의 성취를 위한 의견 및 창조적 사고의 교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는 언어적인 말과 글, 비언어적인 동작(손짓, 몸짓) 표정(신호, 눈짓) 분위기 태도 등의 도구로 이뤄진다.

이 중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몸짓, 표정, 지문자(指文字)를 주고 받는 수화법(手話法). 1760년 프랑스의 드레페에 의해 창시된 수화법은 각국 국어의 어법에 맞추어 조직되고 추상적인 언어는 기호를 붙여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교육방법의 수단으로 개발되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불필요한 서울 삼선승가대학(학장 묘순스님) 학인들이 처음으로 단체 수화수료증을 받아 화제다.

삼선승가대에서 지난해 9월 필수과목으로 처음 개설된 수화강좌(초급과정)를 학인 22명이 1년여간 수화 및 장애인 복지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3일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로부터 정식 수료증을 받은 것. 그간 개인적으로 수화강좌를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스님은 몇몇 있었지만 승가대학내에서 정식 강좌개설을 통해 수료생을 배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의를 맡았던 해성스님(연화복지원장)은 "3년전 동아리 차원에서 시작된 수화모임이 승가대학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발전되어 기쁘다"면서 "가을 학기부터는 수화뿐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 견학, 봉사 체험 등을 통해 장애인포교에 나설 수 있는 원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화강좌를 수료한 학인스님들은 동아리모임때부터 수화공연을 펼칠 정도로 실력이 대단하다. 지난해 8월 보탑사 산사음악회, 12월 시흥불교음악의 밤, 올해 4월 지체장애



인 세상나들이 및 서울 중앙병원 봉축행사 등에서 찬조공연을 벌여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았었다.

때문에 수료생들은 이번 강좌를 계기로 장애인들을 특수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불성을 지닌 동등한 불자로서 동체대비심을 나누는 스님과 불자들이 더욱 늘어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크다. 보다 많은 출·재가 교육기관에서 수화강좌가 개설된다면 아직 걸음마 단계인 장애인 포교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란 기대다.

김재경(취재 1부 기자)

장 군 죽 비

◇동국대 일반 대학과 똑같은 학력 인정 사이버대학 문 연다. 진학시기, 공부시간까지도 개인의 의지로 조절 가능한 평생교육의 장. (2면)

◇ '손짓법회' 로 청각 장애인 불자들과 함께하는 대학생 불자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언어는 '자비' 임을 '손' 으로 말한다. (6면)

◇법당에서 사르는 향 연기 속에 발암 물질, 정녕 태워야 할 것은 향이 아니라 쉼없이 솟아나는 마음 속의 욕망임을 되새기시기를. (23면)

◇국보34호 경남 창녕읍 동3층석탑 방치 상태에서 훼손 심각. 국보에 대한 무관심과 관리 소홀만큼은 국보급. (29면)

10개 도시 8백여 전통사찰서 숙박 가능
2002년 월드컵 관광객 한국불교 체험

'템플 스테이' 추진

종단협 · 조계종, 문화부와 협의 곧 마무리

2002 월드컵 기간중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국 전통사찰에서 생활하며, 참선, 다도 등 다양한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템플스테이(templestay)가 적극 추진된다.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후원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가 주최하고 조계종 포교원(원장 직대 상운)이 주관하는 템플 스테이는 전국 10여 도시의 800여 전통사찰을 월드컵 관광객 숙박시설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템플스테이가 시행될 경우 월드컵 관광객 약 35만명의 50%(약 17만5천여 명)까지 사찰에서 숙박을 해결할 것으로 추산돼 외국인포교 특수가 기대된다. 월드컵 관광객이 평균 일주일 이상 사찰에서 머무는 것을 감안하면 1600여 년 전통의 한국 사찰의 개방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서구인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참선 프로그램은 한국불교를 깊이 체험하는 최고의 문화 포교상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단협의회 사무국장 법현스님은 "2002 월드컵 대회기간에 숙박시설만 14만여 실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숙박시설은 모두 합쳐봐야 4만 6000여 실밖에 되지 않는다."며 "템플스테이는 관광객의 숙박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그간 빈약했던 외국인 포교에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내년을 '문화환경 보존의 해'로 선포한다는 계획이며, '우리유산의 해'로 지정하여 우리 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월드컵을 계기로 전 세계에 우리 전통문화와 정신을 홍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a.com

도난 문화재 은닉-보관도 처벌

문화재 보호법 입법예고

앞으로는 도난 · 도굴된 문화재를 은닉하거나 보관하다가 발견될 경우, 그 원인에 관계없이 벌도로 처벌받게 된다. 또 공소시효 특례를 둬 은닉 및 보관 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문화재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81조(손상 및 은닉의 죄) 3항과 동법 제82조(도굴 등의 죄) 4항을 신설, 도난 · 도굴된 문화재를 은닉하거나 보관한 행위를 그 이전의 절취, 도굴, 양도, 양수, 취득, 운반 행위의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은닉 및 보관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그 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시작한다.

문화재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문제는 사찰소장 비지정문화재의 도난을 막기 위해 교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내용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a.com



장엄한 모습 드러낸 만다라

티베트스님들이 제작한 전통 만다라가 통도사 성보박물관 중앙홀에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 만다라는 6월25일부터 시작된 통도사 성보박물관 '티베트 유물전' 행사의 일환으로 7월 8일~8월 5일까지 진행된 '만다라 제작시연'에서 초펠, 돈텐놀부, 짜시곤포, 카티 등 네명의 티베트 스님이 현지에서 가져온 옥석가루와 버터로 완성했다. 만다라는 원래 다시 무(無)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살려 완성과 동시에 다 쓸어 없애버리지만 박물관측에서는 전시회가 끝나는 9월 17일까지는 그대로 둘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eljee@buddhapa.com

교재가연대, 포교사단 등 불교계 18개 단체로 구성된 '비폭력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17일부터 일주일간 매일 오전 11시 30분 조계사 마당에서 '비폭력 평화 실현을 위한 재가불자 참회정진'을 갖는다.

이경숙 · 한명우 기자

지역불교 문화기행

신라 불교문화를 찾아서

지난 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우리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다시한번 세계에 알린 성보 석굴암 본존불(국보 제24호)은한국의 대표적인 불상입니다. 석굴암에서는 현대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내부 구조의 완벽한 조화로움에 감탄사를 연발할 것입니다.

매월당 김시습이 머물렀다는 천년고찰 기림사에서는 맑은 계곡과 울창한 조화를 이룬 함월산의 수려한 경치와 함께 대웅전(보물 제833호), 지옥과 염라대왕을 묘사한 탱화, 와당 등 갖가지 진귀한 성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길에는 선무도로 유명한 골굴사에 들러 마애여래불 좌상(보물 제681호)을 친견합니다. 경주지역 불교문화기행을 통해 천년의 세월을 단숨에 거슬러 올라가 당시의 찬란했던 신라불교의 숨결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출 발: 8월25일(토) 밤11시 조계사 앞(무박2일)
- 회 비: 5만5천원(조식 중식제공)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후 원 : (주)한화여행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1,4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수분흡수와 정산기능은 일반면의 4배, 무좀이나 피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x262cm(길이)

btn 불교텔레비전 32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 청 방 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